

교실은 무대 · 뒷산은 생태 배움터...꿈·끼 쑥쑥 크는 학교



교육부가 선정하는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에 이름을 올린 광주·전남 14개 학교들은 저마다 개성 넘치는 프로그램으로 '가고싶은 학교'로 소문이 났다. 재미있는 학교를 만드는 데는 교육 과정을 운영하려는 교장·교사의 열정, 학부모의 적극적인 지원도 빠지지 않는다. 곡성에 위치한 전남조리과학고 학생들의 교내 요리경연대회 모습(왼쪽)과 영광초 학생들의 연극 활동.



교육부가 선정하는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에 이름을 올린 광주·전남 14개 학교들은 저마다 개성 넘치는 프로그램으로 '가고싶은 학교'로 소문이 났다. 재미있는 학교를 만드는 데는 교육 과정을 운영하려는 교장·교사의 열정, 학부모의 적극적인 지원도 빠지지 않는다. 곡성에 위치한 전남조리과학고 학생들의 교내 요리경연대회 모습(왼쪽)과 영광초 학생들의 연극 활동.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선정 광주·전남 14곳 비결 보니

‘학생들의 꿈·끼가 자랄 공간을 만들어 주는 학교,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많아 매일 가고 싶은 학교.’

교육부가 최근 특색 있는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학습 의욕을 높여 가고 싶은 학교로 변신한 100곳을 선정했다. 이른바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로, 공교육의 변신을 주도하는 학교들이다.

초등학교부터 중·고교까지 모든 학교가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무장, 창의력과 인성을 갖추고 자신만의 꿈과 끼를 지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의 수업을 들여다봤다.

◇원가 다른 특별함=별교초는 ‘별교 열 잇기’라는 프로그램으로, 삼보향(三寶郷)으로 불리는 지역의 역사를 이해하면서 문화적 다양성을 갖춘 인재로 키우는데 주력하고 있다.

삼보향은 차의 본고향인 다향(茶郷), 소리의 고향 예향(藝郷), 충신열사를 많이 배출한 의향(義郷)이 합쳐진 별칭이다.

‘열 잇기’는 별교찾기·태백산맥·삼보향 프로젝트로 나뉘어 별교 중심지·특산물·갯벌 발전방안에 대해 탐구하면서 태백산맥 문화관·보성여관·흥교 등을 둘러보는 한편, 차를 마시며 별교 위인과 음악을 즐기는 형태로 수업을 진행했다. 별교는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중 ‘최우수’ 학교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프로그램의 독창성을 인정받았다.

전남조리과학고는 ‘3품(인품, 기품, 명

품) 레시피’를 바탕으로 글로벌 인재 육성에 초점을 맞춘 ‘꿈 송송! 기 꺾! 나눔 듬뿍!’ 프로그램으로 눈길을 끌었다. 요리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교내 비즈마켓·창업요리 경연대회 등을 통해 창업 마인드와 취업 경쟁력을 키워주는 한편, 소도시(읍)로 부족한 조리 산업 인프라를 싱가포르 현장학습 프로그램 등으로 극복한 점은 눈여겨볼만하다. 자신들의 요리 재능을 지역사회에 나누는 활동을 수업에 포함시켰다는 점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 분위기 속에 학교의 역할을 돌아보게 한다. 조리과학고는 학생들의 재능을 살린 프로그램으로 ‘100대 우수학교’ 중 상위 15%인 최우수 학교에 이름을 올렸다.

◇초등학교의 변신, 놀라움=목포 유달초는 지난 1898년 일본인 심상소학교로 개교, 100년이 넘는 역사·전통과 낙후된 원도심에 위치, 문화예술인프라가 부족하고 사회적 배려계층 학생이 70%가 넘는 점을 극복하는 ‘유달희망 배움터 3.0’ 프로그램으로 가고 싶은 학교로 변신한 케이스다. 영광초는 마음·생각·얼굴을 3빛으로 설정하고 학생 개인별 능력과 교육적 필요성을 감안한 교육 과정으로 학생들 경쟁력을 키우는데 주력했다.

장성 중앙초는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요구되는 사회 분위기를 고려하면서 교육복지 대상학생(33%)과 디지털 교육기회가 부족한 학생들을 감안, 아날로그 감성에 정보화 역량을 높이는 ‘SMArt 3Go(배우 Go, 즐기Go, 함께하Go)’ 프로그램으로

다도 배우고 음악 즐기는 수업
농촌 지역 문화·IT 교육 강화

나만의 요리 지역에 재능기부
나눔 실천 국제교류 프로그램도

독서의 힘... 토론·동아리 활동
실무 교육 창업 경쟁력 키우기

미래 경쟁력을 갖추면서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함평 손불서초는 ‘나비가 비상하는 녹색교육’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1만㎡에 달하는 학교 뒷산, 온갖 야생화가 피고지며 우리말이 자라는 텃밭 등 학교 여건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생태·인문학적 감수성, 비판적 사고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구상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나비가 자랄 수 있는 터’, ‘꿈틀꿈틀, 허물을 벗으며 자라는 애벌레’, ‘비상을 위한 기다림, 탈피’, ‘꿈을 찾아 떠나는 나비’ 등 학생들 교육 교육 프로그램을 세부적으로 나뉘어 바림직한 생태 교육 모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광주교대부설초는 따뜻한 마음(溫), 배움의 슬기, 기쁨을 나누는 향기(香)를 실천하는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특색있게 추진하고 있다.

◇중학교의 재미있는 혁신=광주 신광중은 ‘존중, 배려, 소통으로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학년 중심’ 시스템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를 드러냈



함평 손불서초교 학생들이 숲속에서 새집달기 체험 활동을 하고 있다.

다. ‘나 세우기’(1학년), ‘더불어살기’(2학년), ‘세상과 소통하기’(3학년) 등 학년별로 테마를 설정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학교 구성원이 함께하는 공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구례여중은 ‘예(禮)와 지(知)로 꿈과 끼를 키워가는 행복한 배움터’라는 교육비전을 세워 개인·의사소통능력·학습·진로·심미적 역량을 키우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추진중이다.

특히 오전 등교시간과 점심시간을 30분 활용, 피구·풋살로 체력을 다지는 프로그램과 1인 1독서책을 만들어 ‘매년 30권 이상 책 읽기’ 운동을 펼치면서 독서골든벨 ‘도포채널레이’, 전시회 등을 진행하는 교육 과정도 인상적인 평가를 받았다. 함평 손불중은 농어촌에 위치한 교사

10명, 학생 48명의 작은 학교의 특성을 살린 ‘1048++ 손불 무지개 교육활동 이야기’라는 비전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해 눈길을 끌었다. 특화 프로그램은 면소재지에도 학원·오락실·노래방·문구점 하나 없는 청정(?) 지역의 특성을 살려 창의적 사고를 키우고 지식정보처리역량을 배우며 울림의 심미적감성과 나눔의 공동체 역량을 키우는데 초점을 맞췄다. 예를 들면 ‘나만의 과학그림책·영상만들기’나 전교생이 참여하는 ‘SW·수학·과학 융합축전’을 개최하는 사례 등이 제시됐다.

◇교과, 진로를 탐색하는 프로그램이 경쟁력=광주교는 학교 뒤 계림동산(4435㎡)에 ‘명상 숲’을 조성하고 스스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진로독서 30운동’을 비롯, ‘생글타래(생각과

글을 잇는 실타래) 서평쓰기 대회’, ‘독서논술·토론대회’ 등 독서프로그램 외에 25개의 자생동아리 및 11개 창의적체험활동 동아리 활성화 프로그램 등도 주목받았다. 광주교는 지난 2013년에도 우수학교에 선정된 바 있다. 무안고는 ‘어디에서나(Anywhere) 여러 사람을 만나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고 언제나(Anytime) 독서교육을 기반으로 청의·융합 교육을 실천하고 학생(Anyone)이 주도적으로 참여, 경쟁, 소통하는’ 3A 독서교육이 주목할만하다. 인문학 분야의 전공자를 초청, 토의 및 토론식 강의를 진행하는가 하면, 백범김구기념사업협회와 연계한 ‘두 배로 즐기는 백범일기 프로그램’ 등도 눈길을 끈다. 광양 중마교 학생들이 지니고 다니는 ‘행복 일기’ 수첩도 주목받는 프로그램으로 선정됐다. 학교는 학생들 스스로 ‘생애설계 계획세우기’, ‘20년 후의 나의 명함’을 적고 ‘하루 3가지 이상 감사의 일기 쓰기’, ‘수업 중 발표활동, 방과후활동, 동아리활동 기록하기’ 등을 담은 ‘행복 일기’를 작성하고 이를 학교생활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진행중이다.

광주공고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을 둔 실습 중심의 직업 교육을 진행해 온 특성화고로 인정받았다. 금형·기계 가공, 자동화·기계 설계 제작 분야 등 지역 산업 수요를 반영해 특성화한 정밀기계과와 기계시스템과 등 7개 학과 교육 과정을 현장에 맞게 개편하고 세부 실무과목을 편성하는 한편, 청년 사장되기 프로젝트 등 산업현장과 연계한 학교 교육을 진행한 점 등을 인정받았다. /김지을기자 dok2000@

토지, 6256평

- 전남 나주시 남평읍 우산리 532-1번지 외 6필지
- 토지 6256평 / 계획관리지역
- 매매 - 16억
- 건물 256평, 현재 양어장 운영
- 전원주택 오토캠핑장 펜션 가든 온천 호텔 등등 모든업종 가능
- 개발 후 70억 이상 가치 있음
- 주인직매 H. 010-3605-5000

구례, 산동면 대형모텔

-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
- 대지573평 건물719평 4층건물
- 지리산 온천지구내, 객실58개
- 리모델링 준비중 (4억예산)
- 감정/시세 - 15억
- 대출 - 8억 (4.65%)
- 매매 - 협의
- 동업 - 운영하실 분
- 법인체 인수 가능
- 직매 H. 010-3605-5000